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대한 시고*

박기용**

|| 차례 ||

1. 시작하며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반성
4. 차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고려할 점
5. 마치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행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조만간 다가올 미래 제4차 산업혁명(Mastering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적 변환을 개괄적으로 모색한 시고(試稿)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 적용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상부터 개편하여 재설정해야 한다. 역량은 기존 여섯 가지 역량에다 ICT 기술, 인터넷을 활용한 과제 해결, 온·오프라인의 소통 및 자기 감성 표현 능력을 더 포함시켜 재설정해야 한다. 국어과는 핵심 교육과정(Core-curriculum)을 적용하고, 독서교육은 필수 지도하며, 이의 성공을 위하여 ICT나 AI를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프로젝트 학습을 역량 중심으로, 창의력 개발 학습, 토의·토론 학습을 적용하되, 타 교과와 융합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평가는 지식 위주 평가보다 과정 중심 평가가 과제해결 학습에 더 적합하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핵심 교육과정, ICT기술, 프로젝트학습, 소통능력, 과정 중심 평가,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4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1. 시작하며

곧 다가올 미래인 2030~50년대에는 지금과 크게 다른 환경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활용, AI 산업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자율 주행차의 상용화, 로봇 활용의 일반화가 분명해 보인다.

2015 교육과정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이 제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기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만약 미흡하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인가를 살펴보고 미래 세대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처럼 교육과정이 미래 세대와 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시대를 관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안목 없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일관성 없는 정치논리를 내세우며, 권력을 배경으로 교육을 지배하여¹⁾ 민족의 백년대계를 수립할 수 없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거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 선거를 의식한 인기 물이 작전을 떠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문화와 문명,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와 경제 발전의 예측에 따라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²⁾

본고는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상황을 탐색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돌아보고, 미래에 살아갈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되,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핵심적 시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도달점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논의의 자료는 ‘2015 개정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그 동안 선행들이 논의한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방향에 관련된 선

1) 안기성 외 공역, 『미국의 교육법제』, (주)청암미디어, 1999, 13면.

2) 주영, 「나는 미국교육이 좋다」, 미래 M&B, 2000, 70면.

행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여 비교, 대조, 분석하는 방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요구

2.1.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제4차 산업혁명(Mastering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용어는 다보스 포럼의 토의장에서 사용된 것이다. 여기서 제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사회, 인류의 행동양식에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산업혁명의 목표는 디지털과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없애고 각 기술을 융합하는 것³⁾이라고도 하고,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산업혁명⁴⁾이라고도 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인간이 가진 사고력·학습력 등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개념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인공지능이며,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폰과 각종 전자 기기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용자가 이용하고 싶은 패턴 형성을 확인하여, 결국 행동을 예측하거나 생산과 유통망과 연결하여 산업화하는 방법으로서, 그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가능성에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활용될 인공지능은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고하는 단계로 발전하여 막대한 빅 데이터(big-data)를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하여 인간의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⁵⁾

3) 원동규·이상필,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le 매거진』 23(2), 대한산업공학회, 2016, 13면.

4) 조난심,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교육비평』 39집, 교육비평, 2017, 331면.

5) 원동규·이상필, 앞의 논문, 17-18면.

14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다루고 그러한 시대에 적응하여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 내용 구성과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 시대는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물인터넷이 일상화되고, 3D 프린터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역할 증대로 교육계, 의학계, 군사용, 오락, 각종 조사활동 등에 급격한 기술적, 방법적 변화가 등장할 것이다.⁶⁾ 이에 따라 인간의 직업에도 지금 성업 중인 많은 직업들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대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감성이 중시되는 영역의 직업군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상상한다면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절적인 지식·기능 위주의 내용과 지도방법은 탈피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자기 주도적 역량이 중요할 것이고, 창의적인 과제 해결 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과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학습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처럼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본철학과 방법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2. 인공지능시대의 교육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 수명이 지금보다 길어지고, 대부분의 전자 제품은 스마트 기기로 바뀔 것이며, 사물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가 등장할 것이다. 이때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종은 모두 AI 기기가 차지할 것이고,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일자리는 줄지만 생산성은 극도로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은 기계에게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시간을 사람답게 사는 데 활용할 것이다.⁷⁾ 박영숙 등의

6) 이주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 『선진화 정책시리즈』, 한반도 선진화재단, 2017, 159-160면.

7) 김진형,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STSS 지속가능 과학회 학술대회』 발표지, 지속가능과학회, 2016, 21면.

2030~2050년대 미래 예측 보고서에는 2005년 현재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직업군으로 융합기술산업인 멀티산업에서 1억 890만 개의 직장이 늘어났는데, 자동차 및 소매업 228만 3천 명, 과학·기술 분야 영업직과 생산업자 및 금융 소매업을 포함한 도매업자가 56만 9천 명, 컴퓨터공학 및 응용 기술자(안보/정보기술)가 26만 8천 명, 전기기사(건설/에너지) 20만 명 이상, 네트워크 시스템 및 데이터 통신 분석가가 15만 여명, 응급 의료진 및 간호사와 구급대원을 포함한 진료보조원이 7만 명 이상이였다.⁸⁾ 그밖에 4만~2만 명이 증가한 직종이 항공기 관련 기술자, 중장비 기술자, 생명공학, 우주항공기술자 등 많은 직종이 거의 IT와 AI 관련 산업이거나 이들이 융합된 기술직이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프로젝트 당 고용 계약서를 따로 쓰는 프로젝트 베이스 고용인이 된다. 이때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람을 선발할 때는 인간관계(인성), 직장 충성도, 다양한 사회경험, 자원봉사 경력, 리더십 경력을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능력자라도 다른 팀원과 협력하지 못하거나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프로젝트 성공에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그 프로젝트를 망치게 될 것이다.⁹⁾ 반대로 창의력, 소통력,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고 여기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업체에서 그를 뽑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60~70년대 잘 나가던 산업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양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미소와 양조장이다. 당시 시골에서 가장 부자로 인정받던 업종이었지만 산업기술이 발전하자 모두 문을 닫게 되었다. 그 중 일부는 인근 지역의 버를 모두 사들여 시장의 수요가 생길 때마다 도정해서 쌀을 공급하는 도정공장으로 변신하여 살아남았다. 또 발동기를 가지고 다니며 타작을 해주고 곡식으로 샴을 받던 직

8) 박영숙,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미래 부상 산업과 직업군」, 『大學教育』 151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 41-42면.

9) 박영숙, 「미래 일자리 구하기 위한 메가트렌드 보기(1)」, 『大學教育』 152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62-63면.

15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종이 있었는데, 기계가 발달하고 콤팩인이 들어오자 그들 직종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대신 떠오른 직종은 매체 산업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TV 프로그램 제작, 유튜브, 웹툰 영상, 각종 비디오물, 심지어 오늘날은 인터넷 방송까지 그 콘텐츠의 재미와 유용성에 따라 하나의 직장으로 떠올랐다. 10년 이내 핵심 기술로 떠오른 것으로는 웹 3.0, 차세대 검색엔진, 인공지능 핸드폰, 데이터 보안과 안보장치, 메타 신소재, 태양열과 배터리,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뇌신경공학, 개인 유전자학, 나노 치료(Nanohealing) 산업¹⁰⁾ 등 IT와 AI 기술이 결합(융합)된 산업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감안하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은 IT와 AI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지금과 다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암기하는 공부보다 무언가를 만들고 과제(주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교육 아래 학습자에게 비판적 사고,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갖추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¹¹⁾ 그밖에도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는 사람¹²⁾과 자기 감성을 표현하는 사람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은 비판적 사고, 소통과 협업 능력, 창의력이 있으면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양성하기에 알맞은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기 감성 표현은 '긴장-이완'의 직장 생활 원리에서 생활의 여유와 활력을 주는 묘약이며, 이 역시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반성

10) 박영숙, 앞의 메거진(1), 2008, 67면.

11) 김진형, 앞의 논문, 21면.

12) 조난삼, 앞의 논문, 334면.

3.1. 총론의 문제점

총론의 문제점은 총론에 나타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이다. 그것을 예로 들자면, 첫째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1. 기본사항' '바'항의 규정을 지적할 수 있다.¹³⁾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¹⁴⁾

학교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기별 교과 집중 이수를 실시할 수 있다.¹⁵⁾

이처럼 집중이수를 실시하려는 취지는 학습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계형 전학생의 경우, 잦은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규정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¹⁶⁾

이런 보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역시 만만한 분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경우 부실한 지도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예 집중 이수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중 이수제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선

13)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5, 7면.

14) 교육부, 위와 같은 곳, 7면.

15) 교육부, 위와 같은 곳(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5)항), 9면.

16) 교육부, 같은 곳(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5)항), 11면.

152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 지역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면서, '학습요소'는 성취기준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거나, 모든 성취기준의 내용과 '국어 학습 자료의 예'는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내용의 위계성과 학습의 계열성을 고려하면서 창의적으로 재구성¹⁷⁾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수준과 지역 교육청 수준을 따르라고 국가가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황이나 학습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따라서 먼저 이 논리적 모순을 해소하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나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그 시간의 실제 운영 문제다. 현재 시간 배당 기준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배당은 1·2학년의 경우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336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주당 시수로 환산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3시간, '안전한 생활' 1시간으로써 주당 4시간을 배당하였다. 그러면 1주일 동안 수업할 시수는 1·2학년 각각 26시간 정도 산출된다. 주 5일제 수업에서 1·2학년 모두 5일 동안 기본적으로 5교시까지 수업을 받고, 하루는 6교시까지 수업해야 한다. 이처럼 저학년에게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적절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수대로 운영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의 성격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분류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대체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3시간 정도는 대체가 되고, 1시간 정도를 '안전한 생활'이나 실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6학년까지는 모두 1주일에 3시간씩 배당되는데, 이중 2시간은 학교행사로 대체하여 채우고, 1시간 정도를 실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방식의 교육과정운영은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은 한 시간만

17) 교육부, 같은 곳(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나. 성취기준), 93면.

하게 되는,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운영이 되고 만다. 이것이 교육과정에서 원한 것이라든, 일선학교에서 할 수 없이 운영하는 변칙이든 간에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아니다.

3.2. 교육과정 내용상의 문제점

현행 2015 교육과정은 지난 어느 교육과정보다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을 미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회의감은 그대로 남는다.

그 동안 역대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어과 하위 영역들이 서로 총합적인 국어능력으로서 국어사용 기능이 발현되고 있으며, 그것이 실생활의 창의적인 언어활동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각 영역별로 이론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총체적 연계 원리를 모색하기 보다는 영역 간 분량의 평준화를 유지하느라 성취기준 수를 동일하게 편성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서로 독립적인 거리만 넓히게 되었다.¹⁸⁾ 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영역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 여섯 가지 핵심역량 아래에 국어과의 다섯 가지 영역(듣·말,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을 배치해서 기존의 성취기준을 어떻게 결합하더라도 그것이 핵심역량과 거리가 있게 되어 실제로 역량을 기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학문에 바탕을 둔 다섯 가지 영역을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지적¹⁹⁾은 미래 시대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보면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여 교과 교육 내용의 전체 그림을 보여 주고 교육 내용 간 수평적·수직적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18) 김혜정, 「2015 개정 읽기/독서 교육과정의 내적 논리와 몇 가지 쟁점들」, 『국어교육연구』 62, 국어교육학회, 2016, 172면.

19) 김혜정, 위의 논문, 173면.

15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초등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으로 배열²⁰⁾하고 있다. 기능의 내용을 말하기·듣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맥락 이해·활용하기, 청자 분석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자료·매체 활용하기, 표현·전달하기→내용 확인하기, 추론하기, 평가·감상하기, 경청·공감하기, 상호 교섭하기, 점검·조정하기²¹⁾의 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이 기능을 학년(군)별 분절식으로 제시하여 듣기·말하기에서 음성과 발음, 문법 중심의 언어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198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내용 구성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학문적 계열성을 따라 지도할 수 있으며, 지식과 기능 위주의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다.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총체적 언어학습법(Whole Language Approach)은 의미·주제·텍스트 중심의 국어과 영역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언어학습법으로서 미국 교육과정에 크게 반영되어 지금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이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구성주의 철학에 입각한 내용 구성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능숙한 청자와 화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적인 듣기·말하기 기능을 추출하여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도록 단계별로 기능을 습득하도록 편성하여 내용을 분절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고,²²⁾ 후자는 듣기·말하기 장면을 상황별로 선정하여 실제 생활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의 수를 축소하여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5차 교육과정 이후의 분절적 단원 구성²³⁾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자극, 과정, 결과’가 연쇄적 또는 융합적으로

20) 서영진,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공통 교육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75면.

21) 교육부, 앞의 자료, 88-89면.

22) 김혜정, 앞의 논문, 176면.

23) 박용욱·한철우·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1995, 39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²⁴⁾

그러나 학교 수업에서는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 방법은 교과서 학습의 중심이 지식과 기능 습득에 있는 만큼, 앞에서 지적한 국어능력의 총체적 학습이나,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탐구 능력을 길러 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래 사회에는 누구나 AI 기기를 사용할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측면에서 보면 지식·기능 위주의 분절적 교육 내용 구성방법이 그 시대에 적절한 교육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역시 체계화 된 지식과 기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장점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두 장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제(주제) 해결 중심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하는 ‘바탕 익히기’와 ‘과제 해결하기’의 두 가지 절충 방식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바탕 익히기’는 과제 해결 학습을 하기 전에 국어과 역량과 관련된 해결과제에 대하여 놀이식 지도로 알아야 할 내용을 미리 학습하여 ‘준비’하고, ‘주제’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도록 한다. ‘과제 해결하기’에서는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타 교과와 융합하여 학습자(팀)가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되, 국어과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각 팀별로 역할 분담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교과 과제와 연계하여 다시 통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3.3. 지도방법상의 문제점

지난 11월 9일에 전국 교원양성대학을 중심²⁵⁾으로 ‘좋은 수업 탐구대회’

24)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과제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2014, 91면.

25) 전국 초등 교원 양성 대학으로,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등 모두 12개 대학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15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를 개최하였다. 올해가 8회 대회로 그 동안 수업 실연자 362명, 수업 비평가 554명, 교수·수석교사·전문직의 심사위원 1,122명이 참여하여 연인원 2,038명이 각자 맡은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름 한국 초등교육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도 이 날 국어과 교수·학습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대회를 마치고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나는 비록 수업자가 예비교사들이지만 나름대로 교과 단원의 목표를 해석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교과서 구성 내용이나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방법 안내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이렇게 분절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차후 이들이 성장하여 대학 입시에서 정답 맞추기식으로 입학하고, 다시 대학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을 받는다면, 그 학생들이 과연 미래 사회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어떤 회사에서 적절한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두 번째 생각이었다.

이 대회의 운영에서 평가 관점 및 평가 요소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항목(○표)으로 구분하고 있다.

평가 관점 및 평가 요소	※급간
○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인지시키는가? -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 학생수준고려 - 지적호기심 및 흥미유발 - 성취내용(도착점 행동) 진술 - 명세적 동사로 진술	A (100-96점)
○ 학습상황에 적절한 발문 및 응답 처리를 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의집중을 시키는가? - 학생 수준과 개인차 고려	B (95-9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력과 창의력 촉진 - 사고할 수 있는시간 제공 - 응답처리의 적절성 -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 적절한 어휘와 어조 - 고른 시선 처리 - 주의집중 방법의 적절성 	<p>C (90-86점)</p>
<p>○ 학습목표에 적합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학습내용을 정리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 평가문항의 수준과 양 - 평가방법의 적절성 - 평가결과의 환류 	<p>D (85-81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와의 관련성 -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 학습내용의 구조화 - 학습정리 방법의 적절성 	<p>E (80-76점)</p>

이런 방식의 평가 관점²⁶⁾은 분절식 학습에 적절하다. 여기서 ‘창의적 사고력’은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근거는 물론 2015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수·학습 방식에 있다. 현 교육과정에 충실하여 작성하고 평가한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발생한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을지, 팀원과 원만한 소통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나와 생각이 다른 구성원과 아이디어가 잘 조정될지, 이런 활동이 전체 구성원 또는 회사에 보탬이 될지 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일류 고등학교 출신이 미국의 일류대학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은 이런 교육과정 구성과 지도방법과 관련이 없는지 돌아보고 다시 새판을 깔

26) 진주교육대학교, <제8회 좋은 수업 탐구대회 개최 요강>, 2018, 진주교대, 14면.

15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분절식 교육내용 구성이 야기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학습 능력면의 부족이 결국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비교사들이 아무리 학습목표에 잘 도달하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방법이 ‘예비교사들이 초등 교재를 재구성하는 경험이 그들의 이론적, 실제적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수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²⁷⁾고 보기도 하였다. 이는 일선 초등학교 중심으로 교사들이 해야 하는 핵심 과제이나 예비교사들에게 적용함으로써 현 교육과정 체제에서 새로운 가능성²⁸⁾으로 확인되었다.

4. 차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고려할 점

앞 장에서 제4차 산업혁명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창의력, 소통력, 협업력, 적응력이 있고, 자기 감성을 표현하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고 하였다.

4.1. 추구하는 인간상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정리하면, ‘창의적인 능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자기 감성 표현 능력’ 항목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는 창의력을 통하여 타인과 차별성을, 적응하는 소통을 통하여 과제 해결력을, 협업하는 인성을 통하여 갈등 해결 능력을, 감성 표현을 통하여 자기

27) 김지영, 「예비교사가 수행한 교재 재구성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韓國初等教育』 25권 1호, 서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2014, 224-225면.

28) 김지영, 위의 논문, 240면.

발견을 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람’²⁹⁾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항목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교육과정 편성이나 재구성권을 교사에게 위임한다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따라 더 넣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의 표준화 교육, 획일화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2. 핵심역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성찰·개발 역량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³⁰⁾ 그러나 앞에서 이것이 국어과의 학문 영역과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알맞은 역량을 재설정하고 역량에 따라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사항이다.

여기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ICT 관련 기술과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때 타 교과와 통합, 융합하는 학습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글이나 작품을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국어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적으로 글을 해석하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역량에서는 학습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역량을 신장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느낌·경험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그것을 이해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토의·토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배우고, 인터넷의 지식

29)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부, 2015, 3면.

30) 교육부, 앞의 책(국어. 1.성격), 85면.

16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과 정보를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증시되어야 한다.³¹⁾ 인터넷 상에서 타인이 만든 작품을 평가하고 여러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지식이 습득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 여러 성향을 가진 학습자가 모여서 협력학습을 전개하며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계층 간의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자기를 개발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역량에서는 국어로 계승, 형성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능력을 갖춘다.³²⁾ 강조할 사항은 자신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심미안을 기르고 자기 가치를 발견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기표현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4.3. 국어과 교육과정의 형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과정은 핵심 교육과정(Core-Curriculum)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³³⁾ 핵심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정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이다. 국어과의 경우에도 국어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 지도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지도하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표준화, 획일화 된 교과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그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 수준과 형편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학생 맞춤형, 또는 학생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현행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 지역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에서 학습할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가르치는 교육과정,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시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31) 조난심, 앞의 논문, 335-336면.

32) 교육부, 앞의 자료, 85-86면.

33) 조난심, 앞의 논문, 338면.

국어과 교육과정을 강령식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재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단위 학교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의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³⁴⁾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하향식 교육과정이 되어, 수요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상호조정 및 생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교사에게 주어야 한다.³⁵⁾ 이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맞춤형이나 주문형으로 구성하여³⁶⁾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과제 해결 중심학습은 현행 대입제도와 유리되어 있다. 대입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입제도를 분절식 정답 맞히기가 아닌 과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거나 포트폴리오, 에세이 등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행 교육 대학 교육과정으로는 교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해결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그래서 현행 4년제 교육대학 체제를 6년 과정의 석사 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 교육과정을 그 전 해에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여 다음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면 큰 혼란 없이 학생 맞춤형, 또는 학생 주문형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4.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교과서는 현재 실험하고 있는 전자도서가 적절할 것이다. 국가 수준의 내

34) 조난심, 앞의 논문, 342-343면.

35) 이윤미·조상연·정광순, 「교육과정 실행 과정 국내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교육과정연구』 33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5, 85-96면.

36) 조난심, 앞의 논문, 344면.

162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용을 담되, 교육청과 교사들이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역 중심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학습에 적절치 않으므로, 역량 중심으로 개정하여 과제(주제) 중심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용은 IT나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이들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제작하도록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먼저 ‘책 읽어주고 듣게 하기’ 또는 스스로 ‘책읽기’를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책읽기는 사고력 발달의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고력 신장법이다.

저학년은 책 읽어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³⁷⁾ 읽어주는 책 내용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된다. 듣기나 읽는 과정에서 어휘력이 늘어나고, 문장에 대한 짜임을 이해하는 능력도 자란다. 부모나 교사가 저학년 학습자에게 전래동화를 읽어주기 활동이 이야기 구성능력과 상상력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며, 나아가 쓰기에서 서사 분량도 크게 늘어난다³⁸⁾는 사실은 이미 확인³⁹⁾된 바 있다.

고학년에게도 책을 읽어주거나 스스로 책읽기를 하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나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독서 후 활동으로 토의·토론 활동을 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면 자기표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책듣기와 책읽기 활동은 인공지능의 딥러닝(deep learning) 과정처럼 인간의 뇌를 자극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이란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⁴⁰⁾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린이들이 쉽게 책과 만날 수 있도록 책을 선물하거나 독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읽어주고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천고에서 주입식교육을 버리고 독서 토의·토론 교육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줌으로써 좋은 성

37) 천경록, 「책 독서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고찰」, 『독서연구』 30호, 독서연구회, 2013, 337면.

38) 박기용·서영미, 「전래동화 들려주기가 어린이의 이야기 구성능력과 상상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말글교육』 11집, 우리말글교육학회, 2008, 215-217면.

39) 천경록, 위의 논문, 359면.

40) 안수현,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어교육방향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2), 경기연구원, 2017, 166면.

과를 얻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⁴¹⁾ 이 독서활동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력, 자기감성 표현력을 신장시키는 활동과 관련된다.

독서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교과 교육과정에 담을 내용은 국가적으로 계승, 발전되어 온 국어 문화와 관련된 내용, 그 지역 문화와 관련된 국어 문화 내용이 된다. 그 내용이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거기에 담겨 있는 정신과 그것을 활용하여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예컨대 국어 문화 원형을 현대적인 가상현실의 문화산업 콘텐츠로 제작하여 매체를 통하여 통시적(시대적), 공시적(공간적)으로 전달⁴²⁾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교육내용은 국가적 수준, 또는 교육청 수준에서 제작하여 단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 자체 제작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 방식을 벗어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언어사용 상황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역할극을 통하여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흥미도 제고와 학습 효율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자기표현 활동은 인터넷에 탑재하여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하고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올려서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도록 하는 활동을 학년 수준에 맞도록 전개한다.

우리 말글의 어문 규정이나 문법 역시 원리를 먼저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학년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하고, 가상현실로 언어사용 경험을 하도록 표준형 또는 지역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문학 작품의 생산과 수용 능력은 독서 활동과 연계하되, 어린이 수준에 적합한 옛이야기나 어린이 문학 작품을 국어자료로 활용한다. 내용을 읽고 웹툰

41) 김형원, <조선일보> 사회면 '독서, 토론 校風 만드니 …… 입시 성과 좋아져', 2017. 09. 21.

42) 권도경, 「4차 산업혁명매체 시대를 준비하는 국문학 콘텐츠 산업사 개념과 5차 산업시대 국문학 콘텐츠학의 방향성」, 『한국문화』 (8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266면.

16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으로 제작하는 활동, 노래로 만드는 활동, 게임으로 만드는 활동 등 ICT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사의 스토리텔링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교과 내용을 구성한다.

4.5.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도방법

이상의 내용을 국어과 핵심 교육과정으로, 또 역량 중심으로 구성하였더라도 실제 지도방법에서 분절식으로 지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탕 익히기'는 과제 해결의 준비, 주제 선정 등 국어 교과 내용이 전체 주제 아래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흥미롭게 지도하고, '과제 해결하기'는 타 교과와 통합 또는 융합하여 선정한 주제 아래서, 각자 팀별로 담당해야 하는 과제 해결 과정을 수행한다. 그 내용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활동이 된다. 이때 교사는 교과서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과제 중심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학습자를 안내하되, 학습자들은 팀별로 자신들이 맡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여서 토의하여 '준비 - 과제(주제) 선정(바탕 익히기) - 진행 - 산출물 완성 및 발표 - 평가(/과제 해결하기)' 하는 과정으로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여 전체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⁴³⁾ 한편 같은 방식으로 지도하되 학습할 핵심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⁴⁴⁾ 이상의 지도방법은 학생들 간의 협업능력을 길러주고, 온·오프 라인(on - off line)으로 소통하고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단순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여러 교과 영역과 관련된 통합 내지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차원적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비판적, 창의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⁴⁵⁾ 그밖에도 창의성 계발학습 모형이나

43) 강인에 외, 『프로젝트 학습』, 상상채널, 2016, 113-115면.

44) 신재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생태체형 프로젝트 학습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14, 46-47면.

45) 박기용, 「2015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월인, 2018, 325

역할 수행학습, 문제 해결학습을 적용하여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초등교육 현장의 부진인 교육실태를 고려한다면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적용⁴⁶⁾해야 할 것이다.

4.6. 국어과 교육과정의 평가

평가는 지금까지의 지식 위주 평가, 암기를 주로 하게 하는 평가에서 벗어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과제 해결 과정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징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습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식,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므로, 단순 지식 암기 능력 위주의 평가를 뛰어넘는다. 오히려 분석, 비판, 종합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미래 사회에 적합한 평가 방법⁴⁷⁾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 결과가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고 정직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 평가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지식 습득을 위해 억압했던 학습자의 신체적 욕구와 생각, 느낌을,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평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선형적이고 다차원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많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평가는 채점 위주가 주류를 이루고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더욱 소중한 평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면.

46) 신재영, 「답론분석으로 본 학습부진 지도사례」, 『국제언어문학』 제40호, 2018, 122면.

47) 조상식,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적응이나 종속이냐」, 『교육비평』 39, 교육비평사, 2017, 361-362면.

16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5. 마치며

이 연구는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 필요한 교육적 변환을 개괄적으로 모색한 시고(試稿)이다.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상으로는, 창의적이고, 소통할 수 있으며, 협업을 할 수 있으며, 자기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수·학습에서 시장시켜야 할 역량은 기존의 여섯 가지 역량을 미래 사회에 맞추어 재조정 하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 능력, 인터넷 활용 과제 해결 능력, 온·오프 라인에서 소통하는 능력, 인터넷을 활용한 과제 해결 능력, 자기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반드시 포함시켜 재조정하여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형태는 학교에서 과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교육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문 중심의 다섯 가지 영역은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여 역량을 재조정하고 그 바탕 위에 핵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ICT나 AI의 도움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학교 수준으로 교육과정에 맞게 제작하여 보급, 활용하도록 한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책임어주기, 학생이 책임기 활동은 여러 가지 능력을 키워주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그밖에도 국어 문화 원형, 문학작품, 문법 학습내용 등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시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은 과정중심 학습 형태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초등 교육현장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 창의성 개발 학습, 토의·토론 학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원 학습 전개는 '바탕 익히기 - 과제 해결하기'로 진행하되 '바탕 익히기'는 분절식 접근이 가능하고, '과제 해결하기'는 주변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제를 타 교과와 통합, 융합하여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 방식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평가는 과제 중심 프로젝트에서 학습을 과정별로 체크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16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mary School Korean Curriculu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ark, Kiyong

This study is a proposal that examines the present primary school Korean curriculum and seeks the educational changes requir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of all, in the new curriculum, the desirable role model should be changed and reset, with consideration for cultivating talents who can adjust to the future. The new capability should include ICT technology, problem solving skill us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ability both online and offline, and ability to express emotions, as well as the existing six capabilities.

Especially, the primary school Korean curriculum should accept the core-curriculum, make and supply digital contents for students to solve problems using ICT and AI technology, and make reading education mandatory.

In terms of teaching-learning method, the methods of developing creativity and boosting discussion or debate should be applied, focusing on the project learning. In addition, students have to be encouraged to integrate their knowledge learned from other subjects in solving problems to develop their ability required for the future.

In assessing students' school achievement, process-centered assessment is more appropriate than knowledge-centered assessment.

Key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re-curriculum, ICT Technology, Project Learning, Communication Ability, Process-centered Assessment, Primary School Korean Curriculum

참고문헌

□ 기본자료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5, 7면.
 김형원, <조선일보> 사회면 '독서, 토론 校風 만드니 …… 입시 성과 좋아져', 2017, 09. 21.
 박영숙,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미래 부상 산업과 직업군」, 『大學教育』 151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 41-42면.
 진주교육대학교, 제8회 좋은 수업 담주대회 개최 요강, 2018, 진주교대, 14면.

□ 단행본

강인에 외, 『프로젝트 학습』, 상상체널, 2016, 113-115면.
 박기용, 『2015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월인, 2018, 325면.
 박용목·한철우·윤희원,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탐구』, 교학사, 1995, 39면.
 신재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생태체험 프로젝트 학습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14, 46-47면.
 안기성 외 공역, 『미국의 교육법제』, (주)청암미디어, 1999, 13면.
 안수현,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어교육 방향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2), 경기연구원, 2017, 166면.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학사, 2014, 91면.
 주영, 「나는 미국교육이 좋다」, 미래 M&B, 2000, 70면.

□ 논문

권도경,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하는 국문학 콘텐츠 산업사 개념과 5차 산업시대 국문학 콘텐츠학의 방향성」, 『한국문화』 (8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266면.
 김지영, 「예비교사가 수행한 교재 재구성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韓國初等教育』 25권 1호, 서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2014, 224-225면.
 김진형,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STSS 지속가능 과학회 학술대회 발표지』, 지속가능과학회, 2016, 21면.
 김혜정, 「2015 개정 읽기/독서 교육과정의 내적 논리와 몇 가지 쟁점들」, 『국어교육연구』 62, 국어교육학회, 2016, 172면.
 박기용·서영미, 「전래동화 들려주기가 어린이의 이야기 구성능력과 상상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말글교육』 11집, 우리말글교육학회, 2008, 215-217면.

17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박영숙, 「미래 일자리 구하기 위한 메가트렌드 보기(1)」, 『大學教育』 152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62-63면.
 서영진,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공통 교육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5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75면.
 신재영, 「담화분석으로 본 학습부진 지도 사례」, 『국제언어문학』 제40호, 2018, 122면.
 원동규·이상필,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e 매거진』 23(2), 대한산업공학회, 2016, 13면.
 이윤미·조상연·정광순, 「교육과정 실행 과정 국내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교육과정연구』 33권 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5, 85-96면.
 이주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 『신진화 정책시리즈』, 한반도신진화재단, 2017, 159-160면.
 조난심, 「제4차산업혁명과 교육」, 『교육비평』 39집, 교육비평, 2017, 331면.
 조상식,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 적응이나 종속이냐」, 『교육비평』 39, 교육비평, 2017, 361-362면.
 천경록, 「짜독서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고찰」, 『독서연구』 30호, 독서연구회, 2013, 337면.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5일 접수되어 12월 11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